

호주인과 호주 교민의 주거문화 비교를 위한 기초 연구(I)\*  
- 호주 교민의 주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

A Baseline Study on Housing Cultures for Cross-Cultural Comparison between  
Korean-Australians and Australians(I) : An Analysis of Housing Cultures of  
Korean-Australian Families.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연구 교수 이 영 심\*\*

교수 이 상 해

Dept.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Sungkyunkwan.

Research Professor : Lee, Young-Shim

Professor : Lee, Sang-Hae

-----  
〈Abstract〉

Each ethnic group has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and has developed its own culture in the name of a tradition. The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cultures is ever increasing through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or culture cont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eline information about domestic living of Korean immigrants in Australia and Australians for a larger cross-cultural study project. As the first step, the usage of domestic space and seating styles of 52 Korean households in Melbourne were analyzed. Ethnographic research was conducted, utilizing a questionnaire.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most popular type of Living-Dining-Kitchen arrangement was the one which the kitchen is separated from the living and dining area.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when the living room, dining room, and kitchen were all separated. 2. A laundry room was indispensable for Koreans in Australia, and they wanted to dry laundry and do ironing in there. Most people were satisfied with the toilet separated from the bathroom. A drain hole on the floor of the bathroom was not indispensable for most Korean-Australians. 3. Korean-Australians tend to engage in various activities in their individual rooms, and they estimated that the size of most rooms were small. They also wanted to renovate the house to expand the rooms. 4. The seating style of Korean-Australians was mostly chair-seating. Yet, they often made beds on the floor for guests, and made kimchi sitting on the floor. Also, when they were relaxing, they were using both chair-seating and floor-seating. 5. Korean-Australians were not very satisfied with the use of floor carpets because of the dust collected on the carpets, and the difficulty to clean. It may be related to their preferred floor seating style, as well. 6. Almost all Korean-Australians take off their shoes inside of the house for hygienic reasons. They had a shoes cabinet at the entrance inside of the house. 7. The most popular heating system was ducted heat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about this was moderate because hot air contains lots of dust and it makes rooms very dry. Many were using electric blankets and their desired heating system was Ondol (heated floor). 8. Korean-Australians thought that the living room was the most important place for the family, and believed it should be decorated well to entertain guests. They also pointed out that the lighting was not bright enough in general.

-----  
▲주요어(Key Words) : 비교문화연구(cross-cultural study), 문화적 배경(cultural background), 전통(tradition), 한국 교민(korean immigrants), 호주인(Australians), 주거 공간(domestic space), 기거 양식(seating style)

\* 본 논문은 2005년도 BK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주 저 자 : 이영심 (E-mail : yslee99@hanafos.com)

## I. 서론

주거는 인간의 생활을 담는 장소로서의 물리적인 기능 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속한 집단의 사회적, 문화적인 가치와 욕구를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특정 집단의 주거 공간이 형성되는 데에는 자연환경과 사회, 경제적인 상황 등 집단 내, 외부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또한 특정 집단의 주거공간에서는 타 집단과 구별되는 독특한 생활양식이 발달한다. 특정 집단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주거 공간의 구성방식과 생활양식은 그 집단이 가지는 전통의 성격을 띠는 주거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된다. 주거문화는 그 집단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하며 이는 변화된 환경에서도 그 중심 요소가 지속되어 나가는 특성이 있다.

현대 사회는 점차로 그 생활 영역이 확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각 집단 사이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문화 교류의 가능성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문화변용(acculturation) 혹은 문화접촉(culture contact)의 과정을 통하여 생활의 여러 면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 주거문화는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는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단 간 영향을 주고받는 비중이 큰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주거관련 분야에서 스스로의 주거문화를 타(他) 주거문화와 비교함으로써 주거계획의 대안을 얻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로렌스(Lawrence, 1982)는 영국과 호주의 주택을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거 공간의 계획과 사용상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벡텔(Bechtel, 1989)은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주거 공간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리슈코 오자키(Ritsuko Ozaki, 2002)는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영국과 일본 주택 거주자의 주생활을 분석하여 문화가 주택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한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의 주생활 분석을 통하여 다른 주거문화에 대한 적응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정무웅, 1988 ; 이희봉, 1988; 조성희, 1996). 또한, 이현정(1992), 박선희(2003) 등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의 생활양식을 분석하여 이들의 주거 아이덴티티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도영(1998)은 한국교민의 주거 조절을 분석하여 전통 문화적인 주거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 우리나라와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아동기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인 경험이 현재 거주 공간에서의 개인 영역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 등이 있다(김원필, 이기현, 2003).

라포르트(Rapport, 1960)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택의 형태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관련시켜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주생활

행태 및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교류가 점차로 활발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생활 면에서의 문화적인 교류가 우리의 주거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 주거문화의 발달에 있어서 전통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지 그리고 상호 접촉 및 교류를 통하여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지에 대한 분석은 우리 주거문화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또한 평가할 수 있어 앞으로 다양한 주거 계획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의 주생활에 대한 분석은 지배 문화인 타(他) 문화 속에서의 자(自)문화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과 호주인들의 주생활 분석을 통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집단의 주거문화를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우선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민의 주생활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치는 한인의 주생활 분석을 통하여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관습적인 문화가 적응해 가는 과정을 파악하고 또한 그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 전통 요소를 알아 내는데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점차 관심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호주 지역의 주택 및 주거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多)문화권 사회인 호주에서 다양한 주거문화를 고려한 주택을 계획할 때에 기초 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호주의 중심 도시인 멜버른(Melbourne)을 연구 지역으로 하여 2004년 7월 19일 - 9월 24일 사이에 행하였으며 연구 방법은 현장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현장 연구는 문화인류학에 근원을 둔 문화기술학(Ethnography)의 방법과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각각의 가정을 방문하여 관찰과 면담을 행하였으며 각각의 주택에 대한 사진 촬영과 실측을 행하였다. 또한 면담한 질문지에 대하여 백분율과 평균값을 구하고 ANOVA 등의 분석을 행하였다. 조사대상 가정은 모두 52가정이었으며 각 가정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거문화 간의 비교를 위한 평가항목은 LDK 연결유형 및 기타 평면구성, 주생활 내용, 주거설비 및 사용, 그리고 주거관련 사항에 대한 인식 등이다. 이를 위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각 주택의 LDK유형과 만족정도<sup>1)</sup>, 개조 여부와 내용, 각

1) 조사대상자의 만족 정도는 측정이 필요한 특정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방식(매우 만족스럽다 5점-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1점)으로 답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평균점수를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실별 활동내용, 각 활동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 각 실별 바닥재, 난방 방식과 만족정도, 주택관련 사항들의 평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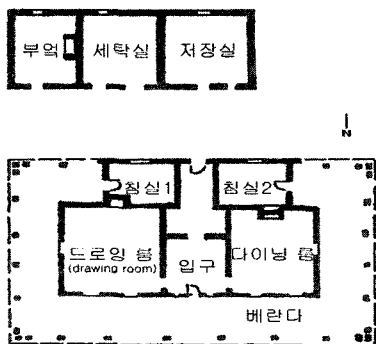
### III. 이론적 배경

#### 1. 호주 주택의 시대별 변천과 주생활의 변화<sup>2)</sup>

##### 1) 정착기 - 1900년 이전의 시기

초기의 호주 건축은 주로 영국에서 수입한 재료와 영국식 디자인을 사용하여 건축하였다. 그러나 호주는 각 지역마다 기후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건축 재료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점차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조오지안 스타일(Georgian style; 1800년-1840년), 클래식(Classical; 1840-1890), 고딕(Gothic; 1840-1880), 빅토리안 이탈리아네이트(Victorian Italianate; 1850-1880), 테라스(Terrace; 1840-1910), 빅토리안 붐(Victorian Boom; 1880-1900), 퀸즐랜더 스타일(Queenslanders; 1860년대) 등으로 분류된다. 1840년대에 목재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주택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1850년대 초기에는 영국에서 조립식 주택이 들어오기도 하였다(Ciddor; Anna, 1999).

19세기의 주택은 벽돌과 돌, 혹은 제재된 목재 등을 사용하였는데 19세기말에는 나무로 만든 웨더보드 커티지(weather-board cottage)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 형태는 단순한 사각형으로 평면의 중심에 현관으로부터 이어지는 긴 복도가 있었고 복도를 중심으로 하여 드로잉 룸(drawing room)이나 팔러(parlour)가 있었으며 다이닝 룸과 부엌, 두개 이상의 침실과 욕실 등으로 구성되었다(Ian Evans, 1983).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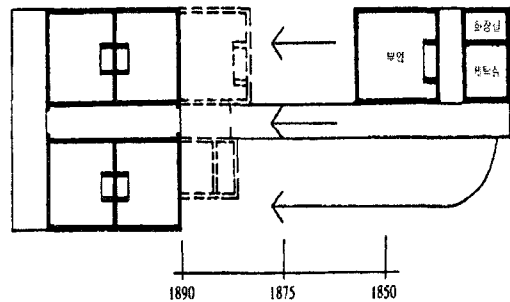


<그림 1> 초기 시기의 조오지안 스타일 주택 평면  
Ciddor, Anna, 1999, p23)

2) 본 내용은 호주 주택에 관한 문헌과 주택, 건축 관련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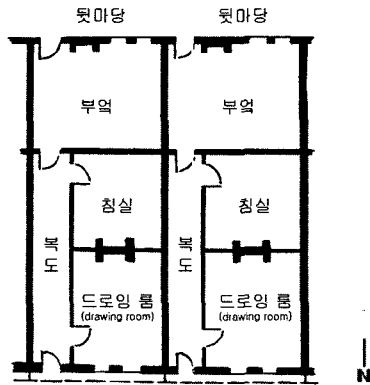
드로잉 룸이나 팔러는 손님 접대용 방으로서 주택에서 가장 잘 꾸며놓은 방이었다. 드로잉 룸이 손님 접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팔러는 가족용 거실인 시팅 룸(sitting room)이었는데 대부분 한 방에서 양 기능을 모두 행하였다. 평소에는 여자들이 드로잉 룸에서 바느질과 독서를 하였으며 때때로 가족모임을 하기도 하였다. 가족 식사는 다이닝 룸에서 했는데 때로는 다이닝 룸에 폴딩 도어(folding door)를 만들어 방과 통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식사 후 남자들은 다이닝 룸에서 여자들은 드로잉 룸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다. 1850년대 이전에는 주택 내부에 욕실을 두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았으며 대부분 아이들은 부엌에서, 어른들은 부엌에서 물을 운반해 침실에서 씻었다. 1860년대에 들어와서 주택 내부에 욕실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부엌은 1850년대까지 주택 본체에서 분리되어 있었다(Ian Evans, 1983). 그러나 20세기 초가 되면서 점차 일반 가정에서 하인을 고용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물 공급체계가 발달하면서 경제적인 배관설비가 고려되었고 가정 연료가 다양해지며 조리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러 요인들에 힘입어 부엌이 주택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Lawrence(1982)는 1850-1890년 사이에 부엌과 세탁공간이 주택 본체로 합해지는 모습을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부엌은 여전히 다른 주거 영역에서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그림 2> 1850년-1890년에 부엌, 세탁공간, 화장실이 뒷 베란다는 통해 주택 본체로 통합되는 모습(Lawrence, 1982, p115)

호주 주택의 특징적인 요소인 베란다는 1800년-1810년 사이에 처음으로 계획되었다. 베란다는 뜨거운 태양열이 외벽에 바로 닿는 것을 막아주며 규모가 큰 주택에서는 각 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복도로 사용하는 등 기능 면에서 호주 주택에 부합되는 점이 많아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발전하였다(Ian Evans, 1983). 19세기 후반기에 나타난 특징적인 주택은 테라스 하우스였다. 이 시기의 테라스 하우스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계층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였는데 이는 소규모의 땅에 벽과 울타리, 배수관, 하수관 등을 공유하도록 한 경제적인 주택이었다(Ciddor, Anna, 1999).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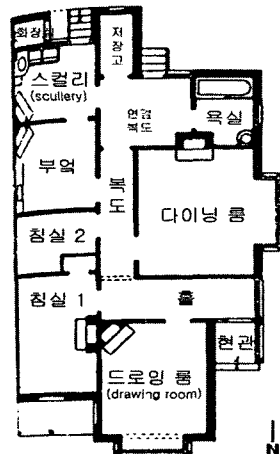


<그림 3> 19세기 후반기의 테라스 하우스 주택 평면 (Ciddor; Anna, 1999, p26)

2) 1900년대 초기 - 1950년대 말까지의 시기

이 시기는 에드워드디안(Edwardian; 1900-1920), 캘리포니아 방갈로(Californian Bungalow; 1915-1930), 스페니스 미션(Spanish Mission; 1920-1930), 워터폴 프론트(Waterfall front; 1930-1940) 등의 건축 양식들이 나타난 시기였다.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별도로 계획했던 건물들이 없어지고 주택 본체에 욕실, 부엌, 세탁실, 화장실 등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초기부터 일반 가정에서 가정부를 고용하는 일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부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4>는 1900년대 초기의 주택 도면의 예이다. 현관 옆에 드로잉 룸이 자리 잡고 있으며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다이닝 룸이 위치하고 있다. 부엌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부엌 뒤에는 스킨리(scullery)를 두었다(John Archer, 1987). 스킨리는 부엌에서 조리하기 전에 씻기와 다듬기 등의 작업을 하는 곳으로 식사 후에 식기와 조리도구들을 씻었으며 빨래를 비벼 빨거나 삶는 작업도 하였다(Ian Evans, 1983). 화장실은 욕실과 분리되어 주택의 뒤편에 위치하였다. 거실과 침실 등의 주요 공간은 주택의 앞쪽에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의 서비스 공간은 뒤편에 배치한 형태였다(John Archer, 1987).



<그림 4> 1908년 교외의 작은 빌라(villa) 평면(John Archer, 1987, p152)

1920년대가 되면서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주택 소유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한 가족 당 평균 자녀수가 1920년대에는 4명, 1930년대에는 2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택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점차 규모가 작은 주택이 요구되었고 콤팩트(compact)한 주택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항목들이 개발되었다. 값싼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침실과 부엌에 붙박이 옷장(built in wardrobe)과 수납장(custom-built cupboards)을 계획하였으며 침실과 베란대에 붙박이식 침대(built in bed)를 설치하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전형적인 주택의 특성은 초기에 있었던 긴 복도가 없어지고 벽난로의 수가 줄었으며 천장의 높이가 낮아진 것이다. 또한 오래된 스타일의 다이닝룸이 없어지고 단순한 sitting room 혹은 리빙 룸을 계획하였는데 이는 건축비용과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림 5>는 1920년대 주택 평면의 한 예이다. 침실과 거실 등의 주요 공간이 이전 시기보다 좁아진 복도 쪽으로 열려 있다. 다이닝룸 대신 sitting room과 리빙 룸을 계획하였으며 화장실은 욕실에서 분리되어 주택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Peter Cuffley, 1989).

1940년대까지 건축 재료가 부족하였고 주택 공급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과 건축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결과적으로 주택 크기는 제한되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는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었던 시기였으며 단순한 기술과 보다 발전된 기술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시기이기도 했다. 1950년대에는 리빙 룸의 면적이 커지면서 다이닝 공간을 포함시키는 계획이 시도되기도 했다. 세탁실 및 다용도실은 주택 뒤편에 계획하였고 다용도실의 안쪽 혹은 그 옆에 화장실을 두었다. 1950년대에는 유럽에서 조립식 주택을 수입하기도 하였다(Peter Cuffley, 1993).



<그림 5> 1920년대의 주택 평면 (Peter Cuffley, 1989, p16)

3) 1960년대 초기 - 1970년대 말까지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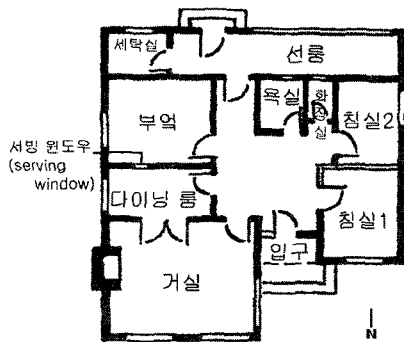
호주 인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 수요 또한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다양한 주택 형

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인 주택 이외에 플랫(flat)<sup>3)</sup>이 보편적인 주택 형태가 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적인 형태였던 티피컬 인터네셔널(typical international) 스타일은 세 개의 침실과 한 개의 욕실 그리고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오픈 플랜(open plan) 형식의 거실과 부엌으로 구성되었으며 간이차고(carport)나 차고(garage)가 포함되었다. 이전에 비해 벽난로가 줄었고 처음으로 주택 디자인에서 굴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Ciddor, Anna, 1999). 철과 강화 콘크리트, 큰 판유리 등의 새로운 건축 재료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값싸고 실용적인 건축 기술을 적용하였다.

1960년대 초에 전형적인 현대 주택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L자형 주택이 그 예로 차고가 부속되어 있고 평평한 지붕을 장식적인 기둥이 지지하는 형태였다. 주택 내부에 덴(dens:응집공간)과 럼퍼스(rumpus:자녀놀이 공간) 룸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부엌에는 해치 웨이(hatchway)를 두고 이를 통해 다이닝룸과 통하도록 하였다. 부엌은 점차 그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미국 잡지에서 본뜬 아일랜드 형 식탁(island bench top)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주택에서 장식(decoration)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다. 욕실에 화장실을 함께 계획하였고 욕실 크기가 커지면서 시설이 화려해지고 두 번째 욕실 혹은 침실에 속한 욕실을 계획하였다. 한편, 1960년대부터 '프로젝트 홈'(project home)이라는 샘플(sample) 집을 건설하였는데 이는 중간 혹은 그 아래 소득계층에게 싸고 좋은 집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John Archer, 1987).

<그림 6>은 1960년대 평면의 한 예이다. 현관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복도를 거실과 침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부엌과 다이닝룸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서빙 윈도우(serving window)를 통하여 이어져 있다. 주택의 뒤편에는 세탁실 그리고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룸을 두었으며 화장실은 여전히 욕실에서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그림 6> 1960년대의 주택 평면  
(Ciddor, Anna, 1999, p33)

3) 호주에서 플랫(flat)은 2층 이상의 독립된 주택들이 한 부지에 대개 4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1970년 후반이 되면서 생활에서 '환경'이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건축 또한 환경과 관계하여 계획되었다(John Archer, 1987). 특히, 1970년대에 일어난 유티 과동으로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편으로 오래된 주택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이 붐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일어나기 시작한 주택 투자와 함께 오래된 주택을 거주자의 기호에 맞게 개조하는 방식이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4)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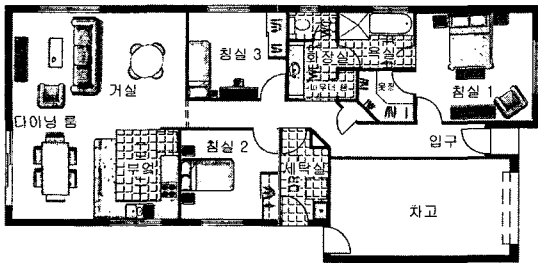
이 시기는 주택 건설 및 계획에 있어 이전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한편 새로운 정책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때이다. 이민자와 유학생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자 많은 인구를 일정한 범위 내에 거주시키기 위해 다층 주택의 건축이 권장되기 시작했다. 단독 주택의 부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단독주택 부지에 유닛(unit)단지<sup>4)</sup>를 건설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였다. 아파트 또한 보편적인 주거형태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특히 가족수가 적고 간편한 생활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게 선호되고 있다(Chris Wight, 2004).<sup>5)</sup>주택의 리노베이션은 8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오래된 주택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면에서 더욱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시작된 에너지 절약은 1980년대 이후 정책적인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어 1991년부터 주택 건축 시 단열 등의 에너지관련 사항들의 의무화를 법제화하였다. 1991년에는 에너지 절약 사항을 준수한 주택에 '2 star home'을 부여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는 '5 star home'으로 그 기준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태주택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 일반 주택에 태양열 난방시스템이나 오수 탱크 등을 만들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Peter Nassau, 2004)<sup>6)</sup>

지난 20여 년간 주택 평면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비격식 가족단란공간(informal living area)의 발전이다. 반면, 격식을 갖춘 식사실(dining room)과 거실(living area)은 사용 정도가 낮은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Dovey, 1992). 즉, 대부분의 주택에서 포멀 라운지(formal lounge)의 개념과 기능이 점차로 약해지고 있으며 대신 주택 뒤편에 있는 가족실(family room)을 중심으로 가족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족실은 부엌, 다이닝 공간과 통합된 오픈 플랜(open plan)의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4) 호주에서 유닛(unit)은 단층으로 된 주택이 한 부지에 한 채 혹은 여러 채로 구성되어 있는 형식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단독주택의 뒷마당에 유닛을 지어 임대하거나 아예 단독주택을 헐고 3-4채로 구성된 유닛 단지를 만드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5) 본 내용은 빅토리아 주정부 관할 '지속가능성과 환경'(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부 소속 연구원(Senior Research Officer)과의 면담을 통한 내용임.  
6) 본 내용은 빅토리아주 건축위원회(Building Commission) 소속 건축설비(Building Quality) 부 담당자(Director)와의 면담을 통한 내용임.

또한, 수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침실에 붙박이 벽장을 충분히 계획하고 있으며 부부 침실에는 워크인 클로젯(walk in closet)을 두기도 한다. 또한 주택 면적이 여유 있는 경우에는 침실부속 욕실을 두는 것도 최근 선호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호주 주택은 점차 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부부 중심으로 공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Andrew Mellios 2004 ; Archicentre, 2004).<sup>7)</sup>

<그림 7>은 최근에 건축한 주택의 예이다. 주택의 뒤편에 부엌과 다이닝룸, 리빙 공간이 오픈 플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 앞쪽에 계획한 부부침실에는 욕실과 화장실이 부속되어 있는데 입구를 달리하여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욕실과 화장실을 분리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 현대 주택의 평면 (Devine 건축회사 주택 평면집, 2004)

이상과 같이 살펴 본 호주 주택의 시대별 변천내용을 중심 공간별로 구분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호주주택 공간의 시대별 특성

주거공간 시기구분	가족단란 공간	부엌	세탁실	욕실
1900년 이전	드로잉룸/ 팔러	주택본체에서 분리.	주택본체에서 분리.	주택본체에서 분리.
1900년대 초 -1950대 말	싱팅룸/ 리빙룸	주택본체에 계획.	주택본체에 계획.	주택본체 에 계획 / 화장실분리
1960년대 초 -1970년대말	덴스/ 럼퍼스룸이 부가됨.	부엌과 식사공간이 해치(hatch)로 연결됨.	면적확대/ 부엌과 연결하여 계획.	면적확대/ 화장실통합형 나타남. 침실부속 욕실 생김.
1980년대 초 - 현재	패밀리 룸 (가족실)이 발달함.	부엌, 식사공간 이 거실과 통합됨.	가사실로서 발전함.	욕실, 화장실의 통합과 분리 병행. 침실부속 욕실이 기 본 설비됨.

7) 본 내용은 건축가인 Andrew Mellios와의 면담과 주택연구기관인 아키센터(Archicentre)가 제공한 자료에 의한 것이다.

## 2. 우리나라 거주자의 주생활 양식의 변화<sup>8)</sup>

주생활양식은 주택을 중심으로 행하는 일정한 생활 양상, 즉 생활의 유형으로서 주생활면에 나타나는 전통, 관습화된 생활행동의 상태이다(박윤성, 1986; 조성기, 1996). 기거양식은 주생활양식의 한 부분으로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간별 사용과 입식, 좌식의 정도 등을 포함하는데 기거양식은 단순한 신체 자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생활 방식이나 주택평면의 계획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今井範子, 1986). 우리나라 도시주택 거주자의 각 공간별 사용 및 입식, 좌식 정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거실

거실은 다목적공간으로서 전통주택에서의 안방과 그 기능이 유사하며 주로 가족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손님접대 등 서구적 개념의 거실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김미희, 1991). 최목화(1991)는 아파트 거주자는 거실을 중심으로 그리고 단독주택 거주자는 안방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생활에 따라서는 안방과 거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절충식 생활이 여러 주택유형에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기거양식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거실에서 가구 사용방식은 거의 대부분 입식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김미희, 1991; 김정규, 1988; 장상욱, 1996). 거실에서 주로 행하는 활동은 가족단란, 접객, 휴식, 독서, 세탁물정리, 다림질, 기타 옷손질과 자녀놀이 등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입식이었으나 다림질과 바느질, 재봉 등의 의생활 관련 가사행위는 좌식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장상욱, 1996). 최근 연구에서는 거실이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면적의 확대와 함께 아파트의 경우 전면에 배치할 것 등이 요구되었다(김미희, 2001; 김수진, 1999).

### 2) 안방(큰방)

안방은 주거내의 모든 공간을 대표하는 중심공간으로서 규모가 크지않더라도 주인으로서의 격을 의미한다(강영환, 1993). 이와 같은 의미로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주택에서 면적이 가장 큰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다(김정규, 1988; 김종인, 1972; 장상욱, 1996). 안방은 우리나라 주거 중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윤재웅, 이미혜, 2000). 윤정숙(1990)의 연구에서는 안방이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다용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우가 기능이 거실로 분화되는 과도기적인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김미희(1991)의 연구는 안방의 전통적인 기능이 감소되면서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가족실의 기능이 점진적인 감

8) 본 내용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생활양식 관련 문헌들에 의거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소를 보일 것을 예견하였는데 최근 행한 연구에서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안방을 부부만의 독립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김미희, 문희정, 2001). 도시 단독주택의 경우는 안방이 다목적 생활기능과 전통적인 의미를 지속하고 있으며 좌식생활 또한 지속하고 있어 안방이 복합적인 기능과 의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윤재웅, 이미혜, 2000). 안방이 부부중심의 공간이 되면서 나타난 변화는 아파트의 경우 안방에 부부욕실이나 드레스룸을 함께 계획하는 것 등이다(배정민 외, 2001).

취침방식은 가족생활주기나 부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김미희, 윤복자, 1992; 김정규, 1988; 장상욱, 1996), 장상욱(1996)은 부부취침 공간인 안방은 입식화된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행하는 좌식행위는 다른 공간에서 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김수진(1999)은 부부침실은 안방의 개념이 잔재해 있는 공간으로서 좌식생활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안방이 부부중심의 전용공간으로 이용될 것에 대비하여 안방면적의 축소와 위치상 후면에 배치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 3) 자녀방

주거공간에서 자녀방으로 사용하는 중간방과 작은방 등에서는 주로 자녀의 취침, 공부와 휴식, 자녀놀이, 손님취침 등을 행하고 있다(장상욱, 1996). 자녀방에서의 입식, 좌식의 유형은 평면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미희, 1991; 김정규, 1988; 장상욱, 1996).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은 입식의 경향을 보였으며 가족이나 손님 취침은 요나 이불을 사용하는 등 좌식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장상욱, 1996). 계획 면에서는 자녀실의 기능이 점차로 확대되면서 규모를 확대시키고 주택의 전면에 배치할 것 등이 요구되었다(김수진, 1999)

### 4) 부엌

부엌 공간에서의 변화는 부엌을 조리뿐 아니라 식사 공간으로 이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부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가족단위와 접객행위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김미희, 1991; 윤정숙, 이은경, 1990). 이는 최근 연구에서 식당겸 부엌을 손님접대와 가족단위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식이 매우 높았던 결과에서 뒷받침된다(김미희, 문희정, 2001). 식사방식은 거주자 특성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입식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미희, 1991; 김정규, 1988; 장상욱, 1996). 부엌과 식당에서 주로 행하는 활동은 식사, 일상적인 식사준비, 김치담기, 야채다듬기 등으로 활동의 대부분이 입식의 경향을 보였으나 김치담기와 야채다듬기 등은 좌식의 경향을 보였다(장상욱, 1996). 부엌과 식사공간의 기능은 점차 제2의 거실로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거주자들은 부엌과 식사공간에 대한 시선을 차단하고 전통주택의 마당에 대응하는 보조공간의 계획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진수, 1999).

### 5) 욕실

주거공간에서 욕실은 단순한 생리위생공간에서 휴식의 기능이 요구되는 건강관리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구식 욕실형태가 도입된 이후에도 많은 거주자들이 욕실바닥에서 머리감기와 발씻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경주, 정경숙, 1989; 서동연, 1990; 이영심, 1989; 탁순애, 1990). 한편 목욕방식이나 행위는 욕조에서 물을 받아 목욕하거나 혹은 서서 샤워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영심, 1996; 장상욱, 1996). 그러나 여전히 욕실 바닥은 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항상 젖어 있는 상태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욕실에서 손빨래 등의 가사행위를 하기 때문에 파악되었다(이영심, 1996).

### 6) 다용도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 다용도실 바닥에 앉아 손빨래를 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파악되었다(장상욱, 1996).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 입식 세탁조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감안하여 손빨래를 위한 손세탁조의 설치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었다(임희경, 今井範子, 1995). 따라서 앞으로 다용도실은 세탁기, 입식 손세탁조, 입식 다리미대, 의류건조기 등을 구비한 다목적 가사공간(유틸리티)으로서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되었다(장상욱, 1996).

## IV. 결과해석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인 주부의 연령 분포는 40세 미만이 55.8% 40-49세 미만이 36.5%로 30대와 4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8.9세였다. 평균 가족 수는 3.6명이었으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형태(63.5%)가 대부분이었다. 조사대상자인 주부의 학력은 67.3%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현재 대부분이 주부였다. 이민연수는 5년 이하(50%)가 가장 많았고 11년 이상(26.9%), 6-10년(23.1%)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소득정도는 연 3만불-5만불 미만인 경우와 7만불 이상인 경우가 각각 30%였으며 다음은 5만불-7만불 미만(26%), 3만불 미만(14%)의 순으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sup>9)</sup>. 조사대상 가정의 남편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 35.3%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이 27.5%였

9) 빅토리아 주정부가 2001년 실시한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멜버른(Melbourne)의 가구당 연간 소득수준은 52,000불-77,948불이 17.2%, 36,400불-51,948불이 14.2%, 15,600불-25,948불이 13.9%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멜버른 거주 한인회장과의 면담에서 조사지역 중산층의 연간 평균소득을 5만불-8만불로 응답한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역시 위의 결과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이들이 본 조사지역에서 중산층에 속한다고 파악하였다.

&lt;표 2&gt;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52

변인	분류	f(%)	
조사대상자 특성	주부연령	40세 미만	29(55.8)
		40-49세	19(36.5)
		50세 이상	4(7.7)
		계	52(100)
	가족수	4명 미만	22(42.3)
		4명	22(42.3)
		5명 이상	8(15.4)
		계	52(100)
	가족형태	부부 + 자녀	33(63.5)
		부부	8(15.4)
		부부 + 자녀 + 조부모	4(7.7)
		부부 + 자녀 + 기타인	7(13.4)
계	52(100)		
주부학력	4년제 대학졸업 이하	17(32.7)	
	4년제 대학졸업 이상	35(67.3)	
	계	52(100)	
남편직업	생산직	2(3.9)	
	판매·서비스직	18(35.3)	
	사무직	6(11.8)	
	행정·관리직	4(7.8)	
	전문직	14(27.5)	
기타	7(13.7)		
계	51(100)		
소득	3만불 미만	7(14.0)	
	3만불 - 5만불 미만	15(30.0)	
	5만불 - 7만불 미만	13(26.0)	
	7만불 이상	15(30.0)	
계	50(100)		
이민 연수	5년이하	26(50.0)	
	6-10년	12(23.1)	
	11년 이상	14(26.9)	
	계	52(100)	
주택 특성	주택형태	단독주택	27(51.9)
		유닛(Unit)	17(32.7)
		타운하우스	4(7.7)
		아파트	3(5.8)
		테라스하우스	1(1.9)
	계	52(100)	
	침실수	2개 이하	14(26.9)
		3개	26(50.0)
		4개 이상	12(23.1)
	계	52(100)	
	주택소유형태	소유	27(51.9)
		임대	25(48.1)
계		52(100)	
건축연수	1년-10년 이하	19(40.4)	
	11년-30년 이하	10(21.3)	
	31년-50년 이하	11(23.4)	
	51년-100년 이하	7(14.9)	
	계	47(100)	

다. 조사대상자의 주택형태는 단독주택(51.9%)이 가장 많았으며 유닛(unit:32.7%), 타운하우스(town house:7.7%) 등의 순이었다. 주택의 평균 침실 수는 3개(5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개 이하(26.9%), 4개 이상(23.1%)의 순이었다. 주택의 소유상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51.9% 그리고 임대인 경우가 48.1%였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년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파악한 결과, 조사대상 주택의 건축 경과연수는 평균 27.7년이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이민연수는 평균 24년이었으며 이들의 주택형태는 2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독주택이었다. 이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평균 건축 경과연수는 44.5년으로 이민 연수가 긴 경우에 오래된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0)</sup>.

## 2. 조사대상 주택의 평면 구성

### 1) 거실·식사실·부엌의 연결 유형 및 만족 정도

조사대상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 유형은 <표 3>과 같이 분류되었다<sup>11)</sup>.

가장 많았던 유형은 거실이 부엌과 식사실에서 분리되어 있는 형(L+D·K:44.2%)이었으며 그 다음은 거실, 식사실, 부엌이 통합되어 있는 유형(L·D·K:32.7%)이었다.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난 L+D·K형은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시대에 관계없이 가장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평면구성방식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자들의 생활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로 보고된 바 있다(김수현, 1999, 배정민외, 2001). 또한 해외거주한인의 공간사용 방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L+D·K형은 가장 보편적인 공간사용 방식으로 파악되었으며 선호 정도 역시 높았다(조성희, 1996). 현재의 연결 유형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만족정도는 평균 3.8점이었다. 각각의 유형별 만족정도를 평가한 결과, 거실, 식사실, 부엌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유형(L+D+K)의 만족 정도가 평균 4.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이 유형의 경우 조사대상자들이 식사 준비와 가족 식사 그리고 손님 접대의 공간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기 때문에 파악되었다. 그러나 거실, 식사실, 부엌이 통합되어 있는 유형(L·D·K: 3.9점)에 대한 만족정도 역시 높아 식사와 가족단위를 한 공간에서 행하는 유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 본 연구의 조사대상 주택의 평균 건축 경과연수는 30여년에 이르며 그 동안 다수의 거주자들에 의한 주택개조 및 변형이 이루어진 이유로 조사대상 주택평면 각각의 시기별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음을 밝힌다.

11) 본 조사대상 주택의 평균 침실 수는 3개(50%), 2개 이하(26.9%), 4개 이상(23.1%)의 분포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규모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해석 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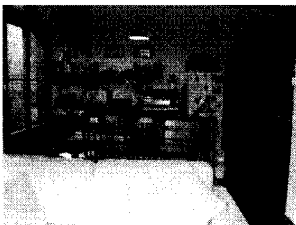
<표 3>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유형 비율과 만족 정도  
N=52

유형	f(%)	만족 점수(5점 Likert)
L · D · K	17(32.7)	3.9
K + L · D	5(9.6)	3.4
L + K · D	23(44.2)	3.6
L + D + K	7(13.5)	4.0
계	52(100)	

- L · D · K: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된 형태
- K + L · D: 거실과 식사실이 함께있고 부엌이 독립된 형태
- L + K · D: 부엌과 식사실이 함께있고 거실이 독립된 형태
- L + D + K: 거실, 식사실, 부엌이 각각 독립된 형태

2) 희망하는 부엌의 위치 및 거실과의 통합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부엌이 뒤편에 있는 경우(80.8%)를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이 보이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손님 접대 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불편하므로, 한국 음식의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등이었다. 부엌이 앞 편에 있는 것을 선호(9.6%)하는 경우는 공간이 넓어 보이기 때문이었으며 중간 위치를 선호(7.7%)하기도 하였다. 거실과 부엌의 통합에 대한 선호정도는 59.6%가 분리하기를 원했으며 40.1%가 통합을 원했다. 분리하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리 시의 음식 냄새 때문으로 이로 인해 아늑한 거실을 만들기가 힘들고 손님 접대 시에도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문화가 식당공간의 개방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서구와 차별화되는 주거형태를 만든다는 보고와 관련하는 결과이다(김수진, 1999).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역시 부엌과 거실이 통합된 형태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희봉, 1998). 거실과 부엌의 통합을 원하는 이유는 작업 동선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가사 작업 시 가족의 참여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는데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 자녀 관리가 손쉽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사진 1> 오픈 플랜의 예 (양미원택)



<사진 2> 찌개를 끓이기 위한 외부 부엌 (신영자택)

3) 세탁실 계획과 조사대상자들의 요구

호주 주택에서 세탁실은 전통적으로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하여 왔으며 이는 현대 주택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Lawrence, 1982). 전체에서 5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손세탁조

가 있는 독립된 세탁실을 갖추고 있었다. 세탁실의 위치는 대부분 부엌 가까이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기 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해당 조사 지역의 특성상 세탁기용 배수 설비가 별도로 있지 않고 손세탁조의 배수 설비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세탁기용 배수호스를 손세탁조에 걸쳐 배수해야 하는 경우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세탁실에 대한 만족정도는 만족이 36.5%, 보통이 30.8%로 평균은 3.7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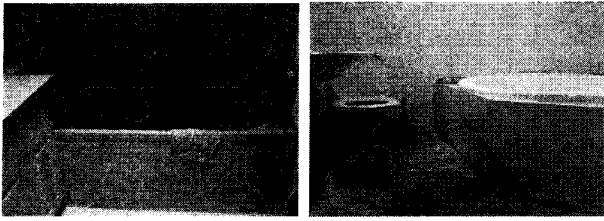
조사대상자들이 세탁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세탁실의 크기가 세탁물 건조대를 두거나 다림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이 지역의 기후 특성상, 날씨 변화가 심하고 겨울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실내에서 세탁물을 건조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거 공간이 혼잡해지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손세탁조를 기본 설비로 하고 불박이식 다림질대를 설치하며 수납장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마른 식품이나 기타 생활용품 등을 수납하기를 희망하였다. 세탁실의 위치는 부엌 그리고 뒷마당과 가까이 있어서 김치 담그기 그리고 빨래 삶기<sup>12)</sup> 등의 작업을 쉽게 하기를 희망하였다. 이 외에 충분한 조명과 방음시설 등을 요구하였다.

4) 욕실 계획과 조사대상자들의 요구

조사대상자들의 욕실은 매우 다양한 형태와 개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욕조, 세면대, 변기를 한 공간에 계획한 형태는 전체에서 15.4%(8사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욕실과 화장실을 분리한 형태였다. 호주 주택에서 화장실은 보통 욕실에서 분리하여 계획한 형태가 보편적인데 이는 욕실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조사대상자들 역시 욕실과 화장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좋다고 하였으며 불편한 점으로는 화장실을 청소할 때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들었다. 욕실의 수가 가족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주택에 대한 만족 정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Galster & Hesser, 1981)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자들 역시 욕실 수가 충분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욕실의 수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주택 개조 시 욕실이나 화장실을 추가하는 개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대상 주택의 96.2%가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었다. 대부분 목욕보다는 샤워를 주로 하였는데 이는 목욕으로 인하여 바닥으로 물이 넘치는 경우를 우려하기 때문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다. 배수구의 필요정도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34.6%(18사례)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65.4%(34사례)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응답자들은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적응하여 현재는 바닥이 습하지 않고 냄새가 올라오지 않아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욕실용 신발이 필요 없어서 더 편리하다고 답하였다.

12) 조사대상자들의 30.8%(16사례)가 빨래 삶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로 행주, 수건, 속옷 등을 사용하지 않는 냄비나 큰 들통에 삶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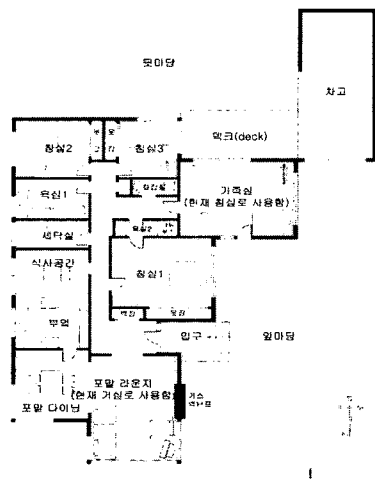
<사진 3> 욕실에서의 세수대야 사용의 예 (김윤희덕)

<사진 4> 욕실에 배수구를 만든 예를 만든 예 (이화중덕)

5) 실(室)사용의 변경 및 개조

(1) 실(室) 사용의 변경

현재 사용하는 실(室)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포말 라운지(formal lounge)<sup>13)</sup>의 경우에 볼 수 있었다. 포말 라운지가 있는 경우는 전체에서 6사례였는데 본래 용도인 손님맞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4사례였으며 2사례는 가족실 혹은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목적을 변경한 이유는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반 거실 외에 가족실(family room)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2사례였는데 2사례 모두 이 공간을 침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식사를 위한 다이닝룸(dining room)을 침실로 사용하는 경우를 2사례 볼 수 있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거실에서 가족 단란과 손님접대를 병행하였으며 식사 또한 다이닝 룸보다는 부엌 내의 식사공간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본래의 계획과 다르게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문화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다 경제적인 공간 활용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주생활 문화에 따라 공간을 사용하는 예는 기타 해외지역 거주 한인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이희봉, 1998; 조성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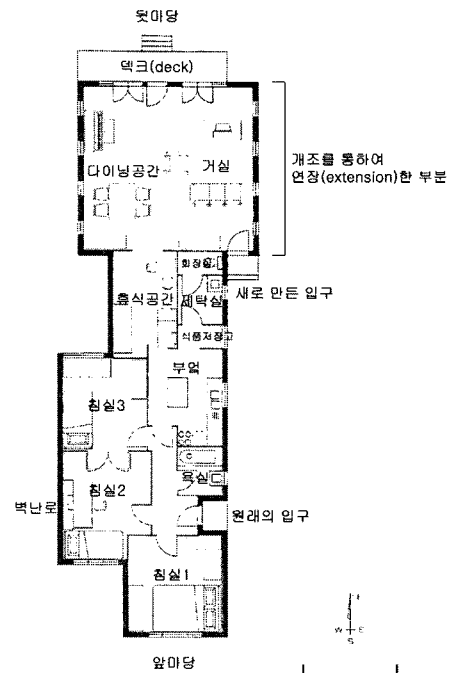


<그림 8> 주택 공간의 사용 변경의 예(안옥련덕)

13) 호주 주택은 전통적으로 주택 입구에 손님 맞이를 위한 공간을 따로 계획하여 왔는데 이는 일반 거실(living room) 혹은 가족실(family room)과 별도의 개념으로서 최근에는 대개 규모가 큰 주택인 경우에 계획하는 경향을 보인다.

(2) 개조 여부와 희망 개조사항

조사대상 주택 중 주택 개조를 한 경우는 모두 10사례였다. 욕실관련 개조가 가장 많았는데 그 내용은 추가로 욕실 만들기, 화장실과 세탁실 분리하기, 화장실에 세면대와 샤워기를 추가하기 등이었다. 부엌에서는 기존의 벽을 없애 거실과 통합하거나 부엌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개조를 행하였다. 이 외에, 2층으로 증축하거나 세탁실의 수납장을 없애고 크기를 넓히는 등의 개조를 행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희망하는 개조는 주택을 연장(extension)하는 형식을 통하여 침실 혹은 선룸(sunroom)을 만들거나 가족실(거실), 침실, 부엌 등의 면적을 넓히는 등 주택 면적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부엌과 식사실, 거실이 하나로 통합된 오픈 플랜을 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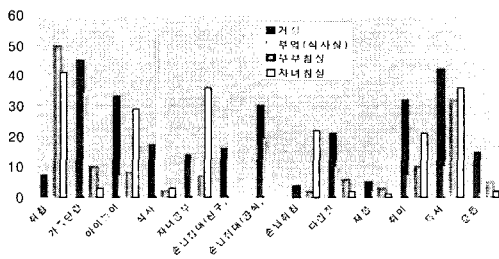
<그림 9> 개조를 통하여 평면을 연장(extension)한 경우(이하경덕)

3. 조사대상자들의 각 공간별 사용 내용

조사대상자들이 각 실에서 행하고 있는 주생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실에서 행하는 주요 활동은 가족단란이었으며 이 외에 주부의 독서행위와 아이들이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 등을 하고 있었다. 또한 40.1%(21사례)가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사실을 포함한 부엌에서의 주요 활동은 식사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단란이었으며 자녀 공부를 식탁에서 하기도 하였으며 다림질을 행하였다. 정무웅(1988)과 조성희(1996)의 연구 역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부엌 식탁을 식사 이외에 가족대화, 아이공부, 손님접대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부부침실에서의 주요 활동은 부부 취침과 독서 등이었으며 이 외의 활동은 가족단란, 아이놀이,

자녀공부 등이었다. 이는 조사대상자인 주부의 평균 연령이 38.9세로서 자녀의 연령이 아직 어린 경우가 많아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결과, 안방 격인 부부침실에서도 다림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부부침실은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방에서 다림질 및 빨래정돈 등의 가사행위를 행하는 것은 기타 해외지역의 한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다(조성희, 1996). 자녀 침실에서는 자녀취침 및 아이놀이와 자녀공부, 독서, 취미 활동 등과 손님취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호주 주택에서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바깥 활동은 가족단란 활동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들은 텍크(deck)를 중심으로 가족 단란과 아이놀이 그리고 바비큐 등을 행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단독주택이 매우 넓은 뒷마당을 소유하고 있는데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뒷마당에 배추, 무, 고추, 파, 깻잎 등의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침실과 거실 그리고 부엌 등의 면적이 대체적으로 작다고 평가하였으며 개조를 한다면 각 실의 면적을 넓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공간별 주생활 내용에서 파악되었듯이 현재 각 실에서 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행함으로써 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는 현상은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이희봉, 1998; 정부웅, 1988).



<그림 10> 주거 공간별 주생활 내용

<표 4> 주거 공간별 주생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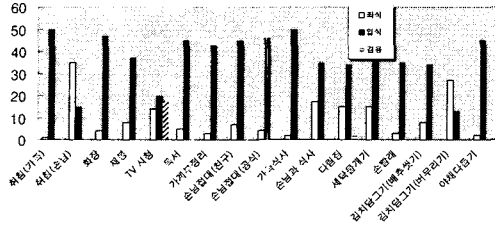
주거공간	거실(f)	부엌(f) (식사실)	부부침실 (f)	자녀침실 (f)
취침	7		50	41
가족단란	45	34	10	3
아이놀이	33	7	8	29
식사	17	52	2	3
자녀공부	14	14	7	36
손님취침(친구)	16	34		
손님취침(공식)	30	19		
손님취침	4		2	22
다림질	21	10	6	2
세봉	5	2	3	1
취미	32	7	10	21
독서	42	10	32	36
운동	15	1	5	2

4. 조사대상자들의 활동별 입식과 좌식 정도

조사대상자들이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입식과 좌식 정도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취침은 1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해외거주 한인의 취침양식은 선행연구에서도 역시 입식 지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조성희, 1996). 그러나 손님취침은 바닥에 요나 매트리스를 까는 좌식의 형태였다. 매트리스는 현재 사용하는 침대에서 꺼내거나 혹은 손님 취침을 위해 여분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사작업 중 다림질은 입식의 경향이 강했는데 66.7%가 입식 다림질대 혹은 식탁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29.4%는 바닥에서 담요 등을 사용하여 좌식으로 행하였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다림질 행위에서 좌식성향이 강하였는데 이것은 조사대상자의 연령 차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었다(박선희, 2003). 세탁물 개키는 작업은 대부분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행하였는데 이는 실내에서 세탁물을 말릴 경우 대개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실이 그 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바느질, 옷손질, 재봉 등의 작업은 주로 소파, 식탁 혹은 침대 등에 앉아서 행하였다. 손빨래는 조사대상자의 78.9%가 세탁실에서 손세탁조를 사용하는 등 주로 입식으로 행하고 있었다. 전체의 78.8%(41사례)가 김치를 담가먹고 있었는데 김치 담그는 행위는 좌식과 입식을 혼용하고 있었다. 배추 씻기는 81%가 주로 싱크대, 손세탁조 혹은 욕조 등을 사용하여 서서 하고 있었으며 버무리기 작업은 67.5%가 부엌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가사 행위 중 특히 김치담그기 작업은 부엌 바닥 등에서 좌식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선희, 2003; 이희봉, 1998). 야채 다듬기는 대부분 싱크대에 서서 행하고 있었다. 화장은 입식의 경향이 뚜렷하였는데 욕실에 서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족의 TV시청은 주로 거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소파와 바닥을 겸용하는 경우가 34.6%(18사례), 바닥에 앉는 경우가 26.9%(14사례) 그리고 소파를 이용하는 경우가 38.5%(20사례)로 TV시청은 다른 활동에 비하여 좌식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식시간이나 가족모임을 좌식으로 행하는 것은 해외거주 한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조성희, 1996; 이희봉, 1998; 박선희, 2003). 독서는 주로 취침 전에 하는 경우가 많아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의 장소는 주로 소파였다. 가계부 정리는 주로 식탁에 앉아서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입식으로 행하고 있었다. 손님 접대는 입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웃이나 친구의 접대가 부엌(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던 반면, 공식적인 손님 접대는 거실(소파)에서 행하고 있었다. 평소의 가족식사와 손님접대는 대부분 식탁에서 입식으로 행하였다. 전체의 32.7%(17사례)가 가족식사는 입식으로 그리고 손님접대는 좌식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좌식상차림이 입식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결

과에서도 대부분 가족식사는 입식으로 손님접대는 좌식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희, 1998; 정무웅, 1988; 조성희, 1996).



<그림 11>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 정도

<표 5>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 정도

주생활내용	기거양식	좌식(f)	입식(f)	겸용(f)
취침(가족)		1	50	
취침(손님)		35	15	
화장		4	47	
재봉		8	37	
TV시청		14	20	18
독서		5	45	
가계부정리		3	43	
손님접대(친구)		7	45	
손님접대(공식)		4	46	
가족식사		2	50	
손님과 식사		17	35	
다림질		15	34	2
세탁물개기		15	36	
손빨래		3	35	
김치담그기(배추쌈)		8	34	
김치담그기(버무리기)			13	27
야채다듬기		2	45	

경우가 46.1%(24사례)였다. 전통적으로 거실 바닥재는 카펫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카펫이 먼지가 많고 깨끗하게 청소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고 심미적인 면에서도 나무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점차로 나무 바닥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조사대상 주택 중 7사례가 전체 바닥재를 카펫에서 나무로 교체한 경우였으며 주택을 선택할 때 바닥재가 나무인 집을 고른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침실은 63.5%(33사례)가 카펫이었고 28.8%(15사례)가 나무 바닥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침실을 취침을 하는 곳이므로 따뜻한 바닥 재료에 대한 필요 정도를 높게 느끼기 때문으로 평가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카펫 사용에 대한 만족정도를 조사한 결과 34.1%는 보통 그리고 24.4%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하여 그 만족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카펫 바닥재가 우리의 생활 관습상 익숙하지 않으며 또한 좌식 생활을 병행하고 있어 먼지발생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우리의 생활습관을 고려할 때 자연 소재가 바람직하며 카펫의 경우 먼지가 많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소음발생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하였다(김수진, 1999). 또한 권오정, 전계원(1999)의 연구는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선호도와 만족정도가 가장 높았던 바닥재는 목재로 그 이유는 건강에 좋고 질감이 좋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바닥재로서 카펫보다 목재를 선호하고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바 있다(박선희, 2003; 이도영, 1998; 정무웅, 1988).

부엌의 바닥재는 청소하기 쉬운 재료인 타일이 44.2% (23사례)로 가장 많았는데 최근 들어 타일은 부엌뿐 아니라 전체의 바닥 재료로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식사 공간의 바닥재는 38.5%(20사례)가 나무, 36.5%(19사례)가 타일이었다. 나무인 경우는 식사 공간을 별도로 구획하였거나 거실과 통합되어 있는 경우이며 타일인 경우는 대개 부엌에 식탁을 두고 사용하

<표 6> 조사대상 주택의 각 실별 바닥재의 구성

N=52

공간별 바닥재료	거실 f(%)	침실 f(%)	부엌 f(%)	식사공간 f(%)	욕실 f(%)
전체 카펫	25(48.0)	33(63.5)		4(7.7)	
전체 나무	24(46.3)	15(28.8)	17(32.7)	20(38.5)	
타일	2(3.8)		23(44.3)	19(36.5)	47(90.5)
모노륨	1(1.9)		7(13.5)	7(13.5)	2(3.8)
돌(대리석)			2(3.8)	1(1.9)	2(3.8)
비닐장판			1(1.9)	1(1.9)	
폴크타일			2(3.8)		
카펫+나무		4(7.7)			
비닐장판+타일					1(1.9)
계	52(100)	52(100)	52(100)	52(100)	52(100)



<사진 5> 거실에서의 좌식 생활의 예 (김미란댁)



<사진 6> 좌식으로 꾸민 손님방의 예 (배용찬댁)

5. 각 실별 바닥재 구성과 신발 착용

1) 각 실별 바닥재 구성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 구성은 <표 6>과 같다. 먼저 거실의 경우 전체 카펫인 경우가 48%(25사례) 그리고 전체 나무인

는 경우였다. 욕실의 바닥재는 90.4%가 타일이었다. 거주자들의 26.9%(14사례)가 주택에서 카펫을 없애고 전체를 나무 바닥재로 교체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13.5%(7사례)는 침실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간을 나무 바닥재로 교체하기를 원했는데 이는 취침 공간에는 카펫을 사용해 따뜻하게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민 연수에 따라 카펫 사용의 만족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민 연수별 카펫에 대한 만족 정도의 차이를 일원 분산분석하였다. 또한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사페(Scheffé)의 다중범위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이민연수에 따른 카펫만족은 6-10년의 집단이 가장 낮았고 11년 이상인 집단의 만족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민연수가 11년 이상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또한 주택 수리를 비롯하여 카펫의 교체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추정되어 카펫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민연수가 5년 이하인 집단은 6-10년인 집단에 비하여 이민연수가 짧으며 상대적으로 건축연도가 오래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카펫에 대한 만족정도 역시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었다. 사후검증결과, 10년 이하 집단과 11년 이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7> 이민 연수별 카펫 만족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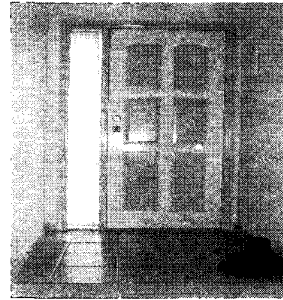
이민연수	만족특성	카펫만족	
		mean	schaffé
5년이하		2.57	a
6-10년		2.29	a
11년이상		3.91	b
F			9.16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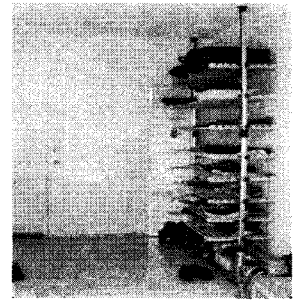
2) 실내에서의 신발 착용

조사대상자들의 96.2%(50사례)가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 중 배우자가 호주인인 경우가 8사례였는데 2사례 이외에는 모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였다. 신발을 벗는 이유는 실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컸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한인들이 주택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관습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부분이 지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선희, 2003; 이도영, 1998; 이희봉, 1998; 정무웅, 1988; 조성희, 1996). 대부분이 현관 밖에 신발을 벗어둔 채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32.7%(17사례)가 현관 안쪽에 신발장을 두었으며 25%(13사례)가 실내의 붙박이장을 신발 수납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외 현관 밖에 신발장을 둔 경우가 9.6%(5사례) 그리고 복도에 신발장을 둔 경우가 5.8%(3사례)였다. 대부분(86.5%)이 실내에 슬리퍼를 구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겨울에 사용하

며 호주인의 방문 시 자주 사용한다. 많은 수의 한인들(61.5%)이 호주인이 방문했을 때 신발을 벗기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이에 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호주인들이 동양 문화를 경험하고 있어 실내에서 신발 벗는 것에 대하여 익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호주인을 방문했을 때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 7> 현관을 타일로 만든 예 (김경미덕)



<사진 8> 현관에 신발장을 설치한 예 (전정자덕)

6.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은 <표 8>와 같다. 조사대상 주택의 대부분(67.3%)의 난방 방식은 덕티드 히팅(ducted heating)<sup>14)</sup>이었으며 이외에는 가스 히터 혹은 냉·난방겸용 에어컨이 셔너 등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덕티드 히팅에 대한 만족정도는 평균 3.27점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날씨 변화가 매우 심하며 시간별 기온 차이가 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덕티드 히팅은 이러한 온도 차이에 대응하여 추운 날씨에 실내 온도를 빠르게 높이는 한편 기온이 올라가면 스위치를 내림과 동시에 빠르게 식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많은 조사대상자들은 순환하는 뜨거운 공기 속에 먼지 입자가 섞여있어 비위생적이며 또한 전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므로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희망하는 난방 방식은 75%가 바닥 데우는 방식의 온돌이었다. 그러나 온돌 난방은 주택 바닥이 콘크리트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목조 주택인 경우 별도의 바닥공사가 필요하며 또한 현지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온돌난방이 주택 매매(賣買)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전통주거요소의 도입이 주택가치의 평가를 절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현실 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거주 한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정무웅, 1988). 조사대상자들 중 75%(39사례)가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정도는 평균 3.59점이었다. 온

14) 덕티드 히팅은 주택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 보일러를 이용하여 공기를 가열한 후 이를 각 실의 바닥 혹은 천장에 있는 공급구를 통하여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개 가스를 사용한다.

들의 대체용품으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것은 기타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사항이었다(박선희, 1998; 이현정, 1992)

<표 8>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 N=52

난방유형	f(%)
덕티드 히팅	35(67.3)
가스 벽난로	8(15.4)
전기 냉·난방 겸용 에어컨 컨디셔너	3(5.8)
온돌	2(3.8)
하이드로닉 히팅*	1(1.9)
난방 없음	3(5.8)
계	52(100)

\* 하이드로닉 히팅(hydrionic heating)은 각 실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하고 온수를 순환시켜 난방하는 방식이다.

7. 조사대상자들의 주택관련 사항의 평가

1) 각 실의 중요성 정도

조사대상자들이 전체 주거공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거실(42.3%)과 부엌(21.2%)이었다. 그 이유는 거실과 부엌은 가족단란을 통하여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주택의 중심공간으로 잘 꾸며야 하는 공간은 63.5%가 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거실이 손님 접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손님이 첫 번째로 보는 대표적인 주택 공간이라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주택의 조명 환경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이 주택 조명의 밝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부엌 외에는 대부분 백열등을 사용하며 전체조명 보다는 부분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정 조도수준은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언급한 라포르트(Rapport, 1985)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조명환경은 조사대상자들이 원하는 조명 방식과 적정 조도수준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명의 밝기가 불충분하여 조명을 교체한 경우가 48%(25사례)였으며 이들 중 백열등을 절전형 형광등으로 바꾼 경우가 68%(17사례)였다.

3) 주거비 내용과 주거비 부담 정도

조사대상자들이 지불하는 주거비의 내용은 가스비, 전기비, 수도비, 전화비 등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카운실 레이트(council rate)비용을 별도로 내고 있다.<sup>15)</sup> 이러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정도는 조사대상자들의 51.9%가 부담스럽다 그리

15) 카운실 레이트(council rate)는 우리나라의 재산세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도로 보수와 청소 등에 사용하는데 청구 비용은 각 지역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 32.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주거비용에 대하여 느끼는 부담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에 따라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별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정도의 차이를 일원 분산분석하였다. 또한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사페(Scheffé)의 다중범위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소득에 따른 주거비의 부담 정도는 소득이 3만-5만불 미만인 집단에서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소득이 7만불 이상인 집단의 경우에 그 부담정도가 가장 적었다. 소득이 7만불 이상인 경우는 총 소비를 구성하는 모든 비용 항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므로 주거비용 역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그 이하인 경우는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그리고 주거비용 자체에 대하여 기본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후검증 결과, 소득 3만불 집단, 3만-5만불 집단과 7만불 이상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9> 소득에 따른 주거비의 부담정도

소득정도	주거비부담	주거비 부담정도	
		mean	schaffé
3만불 미만		2.43	a
3-5만불미만		2.00	a
5-7만불미만		2.31	ab
7만불 이상		3.00	b
F			4.908**

\* p<.05, \*\* p<.01, \*\*\* p<.001

4) 주택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

조사대상자들이 주택을 얻거나 구입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들은 주택의 위치, 향, 주택의 전체적인 상태(condition), 주택의 평면계획 등이었다. 즉,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주변에 학교와 쇼핑센터, 공원 등이 가깝고 손쉽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주택의 컨디션도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이는 주택의 노후정도와 전기, 난방시설을 비롯한 제반 시설은 곧 주택의 유지관리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향은 주택의 전체적인 밝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주택의 향을 중요시하는 것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정무웅, 1988). 조사대상 지역에서 우리 나라의 남향에 해당되는 방향은 북향이며 북향 주택은 다른 방향에 비하여 더 비싸게 매매된다고 한다.

5) 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 정도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정도는 조사대상자의 50%가 만족한다고 하였고 34.6%가 보통으로 파악되었다.

이민 연수 그리고 침실 수에 따라 전체적인 주거만족에 대한 부담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민 연수별 그리고 침실 수별 주거 만족에 대한 만족 정도의 차이를 일원 분산분석하였다. 또한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사페(Scheffè)의 다중범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표 10> 이민연수에 따른 주거만족

이민연수	만족특성	주거만족	
		mean	scaffè
5년이하		3.27	a
6-10년		3.92	b
11년이상		3.86	ab
F			5.103**

\* p<.05, \*\* p<.01, \*\*\* p<.001

이민연수에 따른 주거만족은 6-10년 이하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이는 6-10년의 기간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후 초기의 어려운 적응 시기를 거쳐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인 주거에 대한 만족정도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었다. 하위검증 결과, 이민연수가 5년 이하인 집단과 6-10년 이하인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침실 수에 따른 주거만족에서는 침실 수에 비례하여 주거만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침실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평균값 4.08로 주거 만족이 가장 높았다. 이는 침실 수가 많은 경우 가족원들이 개인 공간을 더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침실 수가 부족하면 그만큼 개인 공간이 감소하여 주생활 면에서 스트레스가 커지는데 따른 결과로 해석되었다. 사후검증 결과, 침실 수에 따른 주거만족은 침실수가 2개 이하인 집단과 4개 이상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표 11> 침실 수에 따른 주거만족

침실 수	주거만족	
	mean	scaffè
2개 이하	3.21	a
3개	3.54	ab
4개 이상	4.08	b
F		5.117*

\* p<.05, \*\* p<.01, \*\*\* p<.001

V. 요약 및 결론

1. 조사대상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 유형은 거실이 부엌과 식사실에서 분리된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거실, 부엌, 식사실이 각각 분리된 형태의 만족 정도가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자들은 조리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분리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이는 특히 손님 접대와 관련하여 더 강조되었다. 본 연구 결과, 주택의 중심공간에서 부엌을 분리되기를 원하는 데에는 조리과 식사 시 발생하는 음식 냄새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부엌의 위치가 주택의 뒤편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결과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형인 거실이 부엌과 식사실에서 분리된 형태는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수현, 1999; 배경민외, 2001). 또한, 부엌이 거실과 통합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거주자와 기타 해외지역의 거주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결과였는데 이는 우리의 음식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김미희, 문희정, 2001; 이희봉 1998). 특정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성 중 음식문화는 특성이 뚜렷하고 그 지속 정도가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준하여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오랜 기간동안 형성되어 온 문화 속성이 주거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속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엌과 거실과의 통합에 대하여 가족단란, 손님 접대와 관련한 문화적 측면에서의 심층연구가 요망되며 또한 이러한 현상이 타 문화권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주생활의 비교문화라는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줄 것이며 특히 다(多)문화권 사회인 호주의 주택 계획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세탁실을 필수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손세탁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세탁실의 기본 설비로 요구하였다. 또한 세탁실에서 세탁물의 건조와 다림질 작업을 행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이는 현재 거실, 부엌, 부부침실 등에서 행하는 작업을 세탁실로 옮김으로서 주생활의 질서를 찾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손빨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세탁조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인 시설이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욕실과 다용도실에서 좌식으로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임희경, 1995; 장상옥, 1996).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손세탁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다는 사실은 주거환경의 변화와 함께 주생활양식 또한 변화한 예로서 우리나라

의 경우도 합리적이고 원활한 가사활동을 위하여 다용도실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었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은 욕실과 화장실의 분리에 대하여 양쪽을 모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다. 주공간의 합리적인 사용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욕조, 세면대, 변기까한 공간에 있는 일률적인 계획에 새로운 형식으로 도입해볼 만한 계획 요소로 사료되었다. 또한, 욕실의 배수구에 대하여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건조하고 위생적인 욕실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설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관습적인 주거 문화가 새로운 주거 환경에 도입된 후 일정한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현지의 주거문화에 적응한 예로서 파악되었다.

3. 각 실에서 행하는 주생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거실의 경우 중심 활동인 가족단란 이외에 아이놀이, 손님접대, 독서 등을 행하고 있었으며 적지 않은 경우가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부부침실은 부부취침과 독서 등 부부의 개인 활동 이외에 가족단란과 아이놀이를 행하는 등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적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다림질도 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개별 주거 공간의 면적이 작다고 평가하였으며 희망하는 개조사항 역시 주택 면적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재 각 공간에서 행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경우 주택의 공간 사용을 그 기능별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우리나라의 안방과 거실은 가족원의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성향을 띄어온 것이 사실이다(김미희, 1991; 윤정숙, 1990; 윤재웅, 2000; 최목화, 1991). 기타 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 역시 일정한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희봉, 1998; 정무웅, 1988).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일부는 원래의 사용 목적을 변경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습적인 주거문화가 이질적인 주거문화 속에서 지속되면서 거주자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절과 변형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서로 다른 주생활 문화에 의한 차이점인지 혹은 조사대상지역의 공간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4. 주생활 내용별 좌식과 입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생활 행위는 대부분 입식이었으며 좌식이 뚜렷하게 나타난 행위는 손님취침 시 바닥에 요를 까는 것 그리고 부엌 바닥에서 행하는 김치 버무리는 작업 등 이었다. 좌식과 입식의 겸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TV를 시

청하며 휴식을 취하는 행위였다. 이는 휴식 시 요구되는 편안함과 바닥 사용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평소의 가족 식사는 거의 입식이었으나 손님과의 식사는 좌식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입식보다 좌식 상차림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이 조사대상자들의 주생활은 대부분 입식 중심이나 일정 부분은 항상 좌식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기타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주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박선희, 1998; 이희봉, 1998; 정무웅, 1988). 주생활의 관습 면에서 보았을 때 오랫동안 행한 좌식생활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고려한다면 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생활에서 좌식생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5.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는 거실은 카펫과 나무, 침실은 카펫, 부엌과 욕실에는 타일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바닥재로 사용하여 온 카펫에 대한 만족 정도는 높지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주택 선택 시 바닥재가 카펫인 주택을 기피하여 선택하거나 혹은 나무 바닥재로 개조하는 것에 대한 선호 정도가 높은 것과 공통점을 가지는 결과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카펫을 선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먼지가 많아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는 기타 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도 유사하였다(박선희, 2003; 이도영, 1998; 정무웅, 1988).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카펫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관습적인 면과 더불어 현재 주생활의 일정 부분을 좌식으로 행하는 점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사료되었다. 최근 조사대상지역에서는 카펫을 나무 바닥재로 교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심미적인 이유 이외에 건강 면에서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多)문화권 생활 속에서의 주거문화 교류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심층 연구가 요망된다.
6. 거의 모든 조사대상자들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주요 목적은 실내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현관 밖에 신발을 벗어두고 생활하였고 신발장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신발장의 위치는 대부분 현관 주변이었다. 호주인들은 관습적으로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여 왔으므로 신발 착탈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서로 다른 주거 문화에 의한 공간계획의 차이로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예로서 조사대상자들은 현재의 주거공간에서 나름대로의 변형과 적응과정을 통하여 관습적



인 주거 문화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관습적인 생활양식의 지속 정도가 매우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伊東理惠, 1993). 조사대상지역은 다양한 문화권이 혼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화권의 상호 교류는 주택 계획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 주택 현관 바닥재의 일부분이 카펫에서 타일 마감재로 바뀌고 있는 경향 역시 타 문화권의 생활 관습을 고려한 변화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호주인의 생활이 변화해 가는 과정까지 고려한 계획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위하여 호주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7.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은 대부분 뜨겁게 데운 공기를 공급하는 형식의 덕티드 히팅(ducted heating)이었다. 이 방식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만족정도는 보통이었는데 이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공기 속에 많은 먼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관습적으로 바닥을 데우는 난방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이에 대한 대체용품으로서 대부분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난방 방식은 역시 온돌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온돌을 시공하는 것은 현재 주택의 조건과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며 특히, 다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의 매매(買賣)를 고려할 때 쉽게 행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미국 거주 한인들의 경우도 유사하였다(정무웅, 1988). 주생활 환경에서 난방방식은 해당 지역의 기후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항목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난방방식은 실제적인 사용과 필요가 관습에 우선하는 항목으로 판단되었다. 최근에는 호주인들 역시 조사대상자들과 같은 이유로 덕티드 히팅을 대체할 수 있는 난방 방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호주인의 난방 방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현지의 주거 환경에 적합한 난방 방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8. 조사대상자들은 거실을 가족단위 공간으로서 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하였으며 동시에 손님접대를 위한 공간으로서 제일 잘 꾸며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조사대상주택에서 거실이 실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상징적인 면에서 중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주택 조명의 밝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관습적으로 전체조명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비용 면

에서 더 경제적이기 때문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주택의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거주 한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향에 대한 선호 역시 관습적인 면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정무웅, 1988).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거 경험에 따라 다른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조사대상자들과는 다른 주거 환경을 경험해 온 호주인의 경우를 비교할 경우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9.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주생활을 분석한 결과, 주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관습적인 요소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한인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손님접대와 가사활동 등 주생활의 특정 부분에서는 좌식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 현지의 일반적인 바닥재인 카펫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결과 역시 좌식문화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인들의 음식 문화는 그 자체가 전통으로서 지속되고 있었는데 음식 문화는 주택의 평면 유형과도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어 부엌이 다른 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정 주거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상 역시 한인의 생활에서 특징적인 요소로서 파악되었고 주택의 향을 중요시하며 부분조명보다 전체조명을 선호하는 현상 역시 관습에 근거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한인들은 이질적인 주거환경 내에서 조절과 변형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신발 착탈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특정 공간의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 등이 그것이다. 기존의 관습과 다르게 변화된 요소로서 파악된 현상은 세탁실을 필수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손 세탁조를 기본 설비로 요구하는 점, 욕실에서 독립된 화장실을 합리적인 계획으로 인식하는 점, 욕실의 배수구를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지 않는 점 등이었다. 관습에 앞서 실제적인 필요가 우선되고 있다고 분석된 예는 난방 방식이었다. 이는 바닥 난방에 대한 관념적인 요구와 현실적인 유용성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주거문화에서 전통으로서의 지속성이 강한 요소와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들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주택 계획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다양한 주거문화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주택 계획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5년 01월 15일  
 심사일 : 2005년 02월 15일  
 심사완료일 : 2005년 04월 19일

## 【참 고 문 헌】

- 권오정·전계원(1999). 아파트 거실 바닥재에 대한 선호와 만족도. **한국주거학회지**, 10(2), 223-234.
- 김미희(1991).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문희정(2001). 식당겸 부엌 전면배치형 아파트의 공간이 용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8), 51-58.
- 김수진(1999). **주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아파트 단위평면 실내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1999). **아파트 단위평면의 유형별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규(1988). **아파트 단위평면의 특성과 거주자의 주의식 및 주생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인(1972). 주의식에서 본 생활공간의 계획,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46).
- 박선희(2003). 캐나다 교민의 주거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3), 109-118
- 박윤성(1986). **주거론**. 서울: 문운당.
- 배정민의 2인(2001). 민영아파트 평면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2), 1-12.
- 서동연(1990). **주택의 욕실계획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주·정경숙(1989). 한국인의 입욕법 측면에서 본 아파트 욕실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7.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 유태용(1999).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학연문화사.
- 윤정숙·이은경(1990). 한국도시주택에 있어서 주생활 양식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53-65.
- 윤재웅, 이미혜(2000).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과 공간사용방식. **한국주거학회지**, 11(3), 65-73.
-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 Amos Rapport(1960). 이규목 역(1985).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 이도영(1998). 미국내 한인이민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조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8), 31-40
- 이도영(1998). 한인이민가정의 주거조절: 가설검증을 통한 이론적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0), 11-17
- 이영심(1987). **단독주택 거주자의 욕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1992). **재미교포의 주거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봉(1998). 재미교포 주거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 현장연구: 광역 아틀란타 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1), 103-114.
- 장상욱(1996).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만족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무웅(1988). **건축문화와 전통성에 관한 연구: 환경변화에 따른 공간적응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논문집 22.
- James P. Spradly. 이희봉 역(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 방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조성기(1996). **도시주거학**. 서울: 동명사
- 조성희(1996). 문화집변에 따른 주양식의 지속과 변용에 관한 행태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9), 79-91.
- 최목화(1991). 현대 도시의 주거생활양식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1), 1-12.
- 탁순애(1990). **아파트의 욕실 공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伊東理惠(리에 이토)(1993). **アメリカに居住における日本人の履床様式**, **家庭學研究**, 39(2), 47-56.
- 今井範子(이마이 노리코)(1986). **住様式がらみた住宅平面にする研究**. 京都大學位論文.
- 今井範子(이마이 노리코)(1986). **起居様式の問題**. **家庭科教育**, 67(9), 94-110.
- 任喜敬·今井範子(임희경·이마이 노리코)(1995). **韓國都市集合住宅における洗濯慣習と洗濯關聯空間の檢討**, **家庭學研究**, 41(2), 55-65.
- Bechtel,R.B.(1989) **Behavior in the house: A Cross-Cultural Comparison using Behavior-setting methodology**. *Housing culture and design*. ED. SETHA M. LOW and ERVE CHAMBER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rochures of Housing plans of Devine(2004). Devine Building Company. Melbourne.
- Ciddor, Anna(1999). **Australian houses and buildings**. Macmillan education Australia Pty Ltd.
- Galster,G.C., & Hesser,G.W(1981). Residential satisfac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13(6), 735-758.
- Ian Evans(1985). **The Australian home**. The Flannel flower press Sydney.
- John Archer(1987). **The great Australian dream: The history of the Australian house**. Angus & Robertson. 43.
- Kim Dovey(1992). Model Houses and Housing Ideology in Australia. **Housing Studies**, 7(3), 177-188.
- Melbourne in Fact 2001(2003). 2001 Census Statistics for local Government Areas. Department of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 Peter Cuffley(1993). **Australian houses of the forties and fifties**. The five mile press.
- Peter Cuffley(1989). **Australian houses of the '20 & '30**. The five mile press.
- Ritsuko Ozaki(2002). Housing as a reflection of Culture: Privatised living and privacy in England and Japan. **Housing studies**, 17(2), 209-227.
- Robin Boyd(1961). **Australia's home**. Melbourne University press.
- Roderick J. Lawrence(1982). **Domestic space and society: A**

cross-cultural stud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4(1), 104-130.

Setha. M. Low & Erve Chambers(1989). *Housing, Culture and Design: A comparative perspectiv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WonPil Kim & KiHyun Lee(2003). A-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on the Personalization of living space through childhood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5(1).